

지오토 디 본도네

‘미술가’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린 최초의 ‘화가’

“문화란 지식 신념체계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관습을 비롯해 사람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능력과 습속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이러 1871)
축소해 설명하면 ‘인위적으로 가공된 세계의 모든 총체적 집합’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자연계의 일원이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자연계를 벗어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간 이외에 좁은 의미의 문화(미술, 음악, 문학 등등)를 창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따라서 예술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 수만 년 전, 인간의 흔적인 동굴벽화는 당시 인류가 제한적으로 공유한 문화의 집합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벽화에는 타이러가 정확히 설파한 문화의 결과물이 당연히 박제되어 있다.

어린 시절 한때 미술과 음악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한가에 대해 친구들과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었다. 필자는 미술이 모든 예술 중에 상위 예술이란 지론을 펼쳤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할 정도로 치기어린 주장이긴 한데 일단 미술이라는 분야는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라는 점과 미술은 많이 접하고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음악을 예로 들자면 음악은 우리의 가슴을 그대로 강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강한 감동을 받는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첫 소절만 들으면 음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향곡이라고는 처음 들었을 촌부라도 강한 임팩트를 느낄 수 있다. 가슴을 치는 북소리의 리듬감은 모든 인간을 흥분케 한다. 이래서 음악을 그저 직접적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하위(?)예술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일반 장삼이사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 음악을 싫어한다거나 모른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미술에 관해 잘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7백여년 전, 지오토(1276~1337 이태리)의 작품을 살펴보자.. 우리는 그가 살던 시기가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고려 충렬왕 치세, ‘중일연’이 우리의 문화유산인 ‘삼국유사’를 완성시킬 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 전면에 등장하는 등만 보이는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시점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비록 두 인물의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지만 그 애도의 감정은 능히 알아차릴 수 있다. 지오토 이전에 성화에서는 모든 인물이 정면을 향해 있었고 그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조정했다. 성화제작 원칙이 암묵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작가 특유의 캐릭터는 배제된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 이래 바로크 미술을 보아 온 우리가 익히 아는 원근법이나 단축법 등은 없었다. 그러한 그림의 예는 초세기 이콘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화 제작의 원칙을 무시한 지오토의 이 작품은 그의 제작 의도를 명확히 하며 르네상스의 문을 연다. 등장 인물 모두는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절제되고 부자연스러운 색채나 성스러운 구도에서 해방된 듯하다. 예수의 얼굴 가까이 슬픔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함’ (프레스코, 200x185cm, 스크로베니 성당, 파도바, 1305)

가득 담은 성모 마리아가 보이고 중앙의 두 팔을 벌린 인물은 예수가 사랑하던 애제자 요한이 틀림없다. 예수 발치에 앉아 못자국이 보이는 발을 어루만지고 있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증명한다. 오른 쪽 두 사람은 아리마태아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추측할 수 있다. 더구나 특이한 것은 하늘에 떠있는 천사들도 온갖 슬픔의 표정으로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판이 워낙 작아서 그 표정을 자세히 구분 할 수는 없지만(다음 편에 디테일 도판을 소개한다) 전세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표현이다. 예수의 시신을 내린 직후, ‘비탄’의 현장을 실제 우리의 시선으로 집중하게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짐)

글/김웅배 안드레아

대림 제 2주일

2023년 12월 1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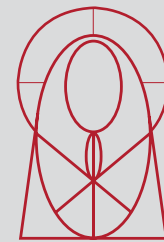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코 1,1-8>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이사야서 40,1-5,9-11 #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8 참조)



후렴: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독서 베드로 2서3,8-14 #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마르코1,1-8 # 성가번호 입당 88 봉헌 212, 215 성체 182, 152 파견 97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이궁주(베드로) -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강창홍(바오로) - 이대우(베드로) 부부
 - 오홍순(카타리나) - 이윤석(리처드), 이소희(사라)
 - 이건상(요셉) - 이선이(마리아)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올리아나) -이희숙(테레사), 이순재(마리아)
 - 임혜숙 - 이순재(마리아)
 - 김영필(안토니오) - 이순재(마리아)
 - 하건철(안토니오) - 이순재(마리아)
 - 오용덕(헨리코) - 이순재(마리아)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쟈마, 요안나/스테파노, 사무엘/헬렌

- 안가연(루시아)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오현주(요한), 나채국(제노)가족 - 오현주(요한), 오옥자(테레사), 나채국(제노)가족

- 이연준(요한) - 정주원(올리아나), 김한천, 오현주(요한), 송진영(마리스텔라), 나채국(제노) 가족

- 김규민(케빈) - 정주원(올리아나), 김한천, 오현주(요한), 송진영(마리스텔라), 나채국(제노) 가족
- 김민결(마크) - 오현주(요한)
- Sophia Barbiero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2명).....	\$1,268	
• 교무금.....	\$1,510	
최영옥(12)	최울리오(10-12)	곽신규(11-12)
박락준(12)	이대우(7-9)	이순분(7-12)
이종권(10-12)	김영숙(11-12)	서영원(11-12)
• 감사헌금.....	익명 (\$200)	

2023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공연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주일) 오전 10시 20분 친교실
-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악기 연주, 성탄 연극, 캐롤 합창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관바랍니다.

2023 사목회 주관 성탄 맞이 성가/캐롤/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구역별로 1곡
- 성가/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개봉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획분과 우성현(스테파노) 형제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증 받은 물품은 기획분과에서 확인하여 재포장 후 2023 성탄절 행사에 선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당에서 송년모임 및 성탄행사 시 기술 보호, 청소 및 문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헌금

- 12월 10일 : 은퇴 사제 및 수도자

대림 판공 일정

- 2차 판공 이튼성당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12월 10일 (주일) 한국어 미사 이후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주일) 오전 10시 한국어/영어 합동 대림 제 4주일미사
- 12월 24일 (주일) 오후 4시 한국어/영어 합동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12월 25일 (월) 오전 9시 영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12월 25일 (월) 오전 11시 30분 한국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7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1월 14일(주일) 오전 10시 20분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20분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친교 봉사 일정

- 12/17 에디슨 • 1/21 올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워

12월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2/10 윤준희, 구윤미 • 12/17 박락준, 이서형
- 12/24 이종권, 이은숙 • 12/25 김동근, 송진영
- 12/31 이호용, 최정원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주소록 갱신을 위한 양식을 배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예식 안내

- 12월 10일 (주일)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를 받는 안가연(루시아), 이연준(요한), 김규민(케빈), 김민결(마크), Sophia Barbiero 5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및 선발 예식 안내

- 예비신자 수련식이 12월 10일 (주일) 미사 중 거행됩니다.
- 성탄 전야미사에서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김한천 형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섬머셋 구역 모임 (구역장 : 백용숙 카타리나)

-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주일) 미사 후 오현주(요한) 형제님 덕

반석회 송년 모임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대건회/야고보회 송년 모임 (회장: 오용운 토마스아퀴나스)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토) 오후 5시 친교실

크리스마스 Giving Tree

- 성당 입구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선물 목록(Tag)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신 후 트리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Tag는 선물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 South Bound Brook 저소득 가정을 위한 크리스마스 Giving Tree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유스그룹을 위해 기부해 주신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올리아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가대, 주일학교/유스그룹

제1독서: 이사야서40,1-5.9-11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젓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감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펼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젓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2서3,8-14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운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 1,1-8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아나
- 방진숙(테레사) 송희수(글라라)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